

회의문자①



招

부를 초

招자는 '부르다'나 '손짓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招자는 手(손 수)자와 招(부를 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招자에는 이미 '부르다'라는 뜻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 다시 手자를 더한 것은 손짓하며 누군가를 부른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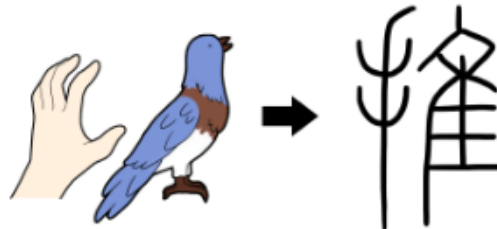
招

소전

招

해서

회의문자①



推

밀 추

推자는 '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推자는 手(손 수)자와 隹(새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隹자는 공지가 짧은 새를 그린 것으로 '새'라는 뜻을 갖고 있다. 새는 앞으로만 날 수 있는 동물이다. 그래서 推자는 앞으로만 나는 새의 특성과 手자를 결합해 '밀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이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의 進(나아갈 진)자도 마찬가지이다. '추진(推進)하다'라는 글자에 隹자가 사용된 것도 후퇴 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새의 특성을 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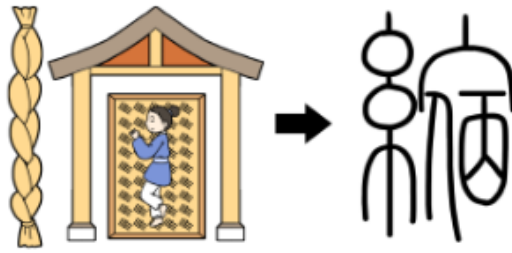
推

소전

推

해서

형성문자①



縮

줄일 축

縮자는 '줄이다'나 '오그라들다', '감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縮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宿(목을 숙)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宿자는 집에 누워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숙→축'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縮자는 실이나 줄을 짧게 줄인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縮자가 '(실을)줄이다'나 '오그라들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하지만 지금은 '감축하다'나 '축소하다'라는 뜻으로만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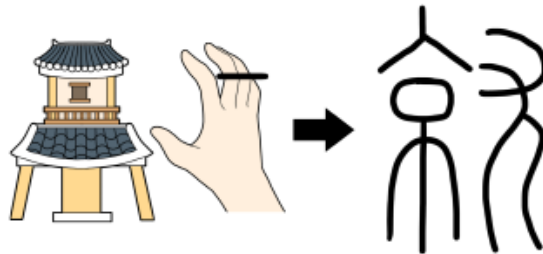
縮

소전

縮

해서

회의문자①



就

나아갈
취:

就자는 '이루다'나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就자는 京(서울 경)자와 尤(더욱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就자는 尢(절름발이 왕)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손끝에 획을 그은 尢자가 잘못 지정된 것이다. 尢자는 '더욱'이나 '한층 더'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이렇게 '더욱'이라는 뜻을 가진 尢자에 '높다'를 뜻하는 京자를 결합한 就자는 '더욱 높아지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아가다'나 '(뜻을)이루다'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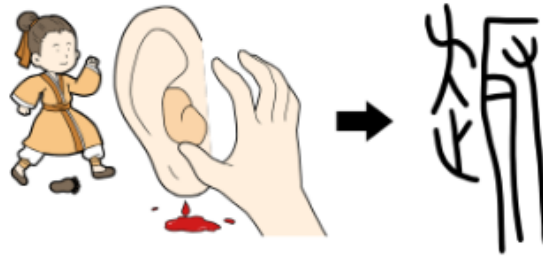
就

소전

就

해서

회의문자①



趣

뜻 취:

趣자는 '달리다'나 '향하다', '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趣자의 走(달릴 주)자와 取(취할 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取자는 귀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얻다'나 '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얻다'라는 뜻을 가진 取자에 走자가 더해진趣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즉,趣자는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의趣자는 주로 '마음이 쏠리는 방향'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趣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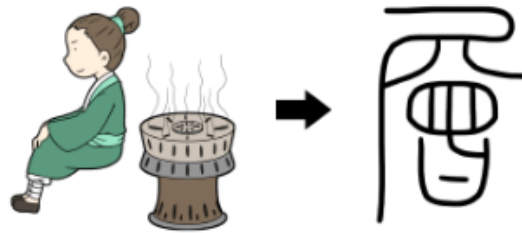
趣

소전

趣

해서

회의문자①



層

층[層階]
층

層자는 '겹치다'나 '층집', '계단'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層자는 尸(주검 시)자와 曾(일찍 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曾자는 화로에 김이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일찍'이나 '겹치다'라는 뜻이 있다.層자는 이렇게 '겹치다'라는 뜻을 가진 曾자에 尸자를 더한 것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층집'을 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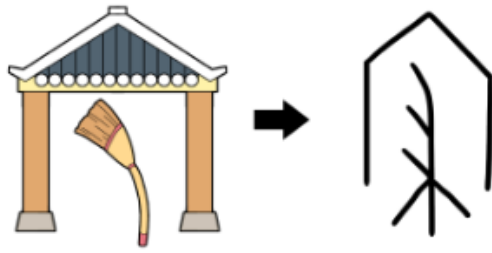
層

소전

層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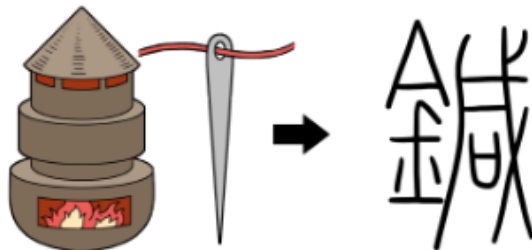
寢

잘 침:

寢자는 '자다'나 '쉬다', '눅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寢자는 宀(집 면)자와 𣎵(나뭇조각 장)자, 帚(비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寢자의 갑골문을 보면 宀자와 빗자루를 그린 帚자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위를 정돈한다는 뜻이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人(사람 인)자가 더해진 寢(잠잘 침)자가 만들어졌었으나 해서에서는 𣎵자로 바뀌면서 '침대'를 표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寢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주변을 정돈하는 모습이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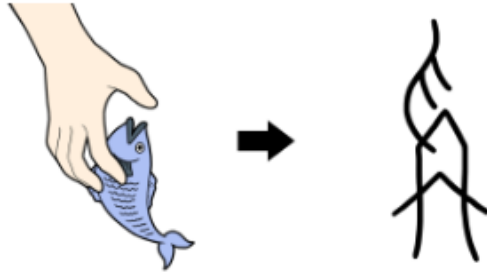
針

바늘
침(:)

針자는 '바늘'이나 '침'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針자는 金(쇠 금)자와 十(열 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금문과 소전에서는 咸(다할 함)자가 쓰인 鍼(침 침)자가 '바늘'이나 '침'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해서에서부터는 十자가 들어간 針자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十자는 바늘 귀에 실이 꿰어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초기 인류는 동물의 뼈를 바늘 삼아 사용했지만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면서 바늘의 재질이 철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針자는 그러한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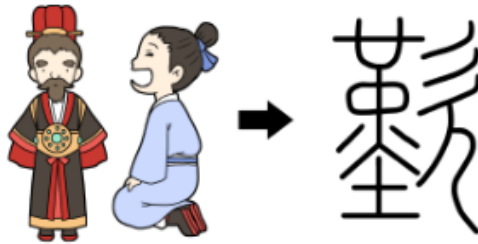
稱

일컬을
칭

稱자는 ‘일컬다’나 ‘저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稱자는 禾(벼 화)자와 冫(들 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冫자는 한 손에 물고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무게를 달다.’나 ‘저울질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禾자가 없는 冫자가 𠂔 ‘저울질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禾자가 더해지면서 곡식의 무게를 잴다는 뜻의 稱자가 만들어졌다. 稱자는 후에 무게를 달아 가격을 제시한다는 뜻이 파생되면서 ‘부르다’나 ‘일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歎

탄식할
탄:

歎자는 ‘탄식하다’나 ‘한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歎자는 難(어려울 난)자의 생략자와 欠(하품 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歎자는 이렇게 ‘어렵다’나 ‘근심’이라는 뜻을 가진 難자에 欠자를 결합해 근심·걱정에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탄식하다’라는 뜻은 口(입 구)자가 들어간 嘆(탄식할 탄)자가 있기도 하지만 주로 歎자가 쓰이는 편이다.

소전	해서